

당원 급증·두자릿수 지지율...국힘 불모지 호남 지지받나

李대표 취임 이후 4개월새 1만명 입당...젊은층 관심 늘어 5·18묘지 참배 등 민심잡기 사활...15% 이상 득표율 노려

내년 3·9 대통령 선거와 6·1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호남 표심 자극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

최고위원회에는 이준석 당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원희룡·유승민·홍준표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들은 국립 5·18민주묘지도 참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권 주자들은 그동안 5·18 역사 왜곡과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것에 사과하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하는 등 호남을 상징하는 '5·18 민심' 잡기에 공을 들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광주에서 대선 후보 본격선토크회의의 스타트도 끊으며 호남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지역 정가에서는 국민의힘의 이 같은 적극적인 호남 구애가 당원 급증과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지난 6월 이 대표 취임 이후 4개월간 호남에서는 약 1만명이 새로 입당해 직전 4개월보다 8배 넘게 당원이 늘었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의 입당과 관심이 늘었다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설명했다.

당 지지율도 두 자릿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MBN이 알앤씨에 의뢰해 지난 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호남 지지율이 13.0%를 기록해 56.4%인 더불어민주당의 뒤를 이었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5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16.5% (민주당 55.1%)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상승세'에 힘입어 지난 대선, 총선에서 연이어 패배해 사실상 와해한 조직을 재정비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섰다.

특히 불모지인 호남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을 달성해 정권교체를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호남 지지율 목표는 30%지만, 15% 이상의 지지율만 나와도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10% 지지율이 목표였던 호남에서 15% 이상을 바라볼 정도로 상황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야당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턱걸이 과반'에 대해 "민주당 당원들이 당의 기득권 세력이 이렇게 몰아갈 때는 당이 몰락하겠구나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민주당 경선 결과를 이같이 평가하면서 "이낙연 후보가 이의 제기하고 공식 후보를 누구로 하느냐 법적 절차가 예상돼 아직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의혹)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어제 민주당 3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득표 상황이 이를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를 비롯해 대선 예비 후보들이 1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보여주는 것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도 상대해보면 참 문제가 많은 당이다"며 "민주당을 불려야 당 자체가 민주화해야 하는데 특정 세력이 당을 장악해서 나머지 뜻 있고 훌륭한 정치인들이 기를 못 펴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고 직격했다.

그는 광주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전남은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육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종행 기자

“광주 시정 위법·부당행위 제보 받아요”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시민의견 수렴 행정사무감사 활용

광주시의회는 내달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의회 홈페이지 (<https://council.gwangju.go.kr>)에서 '시민제보 게시판'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22일간이다. 신고 내용은 위법 부당한 행정 행위, 예산 낭비 사례, 시책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생활 불편 사항 등이다.

시의회는 제보된 내용에 대해선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사생활 침해나 재판·수사 중인 사항, 인

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 사항, 익명제보 등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된다.

또 제보자의 인적사항과 제보 내용은 비공개 처리한다.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는 제보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 받을 수 있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할 소임이 있다"며 "광주공동체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시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광주AI창업캠프 2호점’ 입주기업 20일까지 모집

광주시는 11일 동구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함께 인공지능 관련 기업의 성장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광주AI창업캠프 2호점'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호점은 인공지능 분야 성장 기업 진입 단계 창업 기업을 지원해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양성 소인 광주AI창업캠프 1호점과 함께 인공지능기업 집적화, 광주 인공지능 창업 생태계 조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동구 금남로 지상 1~7층 규모로 마련된 2호점

은 15~60㎡의 다양한 독립형 입주실과 기업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입주기업 편의를 위한 비즈니스 라운지,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입주 대상은 광주AI창업캠프 2호점 사무실로 본사 이전, 지사 및 분사 등 설립이 가능한 인공지능 분야 기업으로, 각 기업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공간을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40개사 내외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오승지 기자

강창용 광주평화재단 공동대표,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임명

강창용 광주평화재단 공동대표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을 지낸 강 대표는 당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전략기획위원회에서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제18대 문재인 대통령후보 특보와 송영길 당 대표 후보 특보를 지낸 강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에서 광주 남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강 대표는 "전략기획위원회는 당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당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라며 "앞으로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당의 발전과 내년 대선 승리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행 기자

박원우 전 전남매일 부사장, 이재명 후보 언론소통위원장 맡아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박원우 전 전남매일 부사장이 중앙조직인 언론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박 위원장은 1994년 전남매일 공채 6기로 입사한 뒤 사회·정치부장을 거쳐 편집국장, 부사장을 지냈으며 2010년 광주전남기자협회장과 2011년 전국도시기자협회장에 선출됐다.

박 위원장은 전·현직 언론인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 조직을 꾸려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고 있

다.

박 위원장은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을 통해 국민 모두가 노력한 만큼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나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 기자

언제나 사랑받는 안마의자

86년

선진안마기술집약체

파나소닉 안마의자 렌탈서비스 개시

퍼스트클래스의 품격, 파나소닉 리얼프로를 렌탈로 부담없이 경험해 보세요!
렌탈 계약시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합니다.

4년 무상 A/S
1년 + 3년

REAL PRO

파나소닉프라자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